

요한이 옥에 갇히다

¹⁵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¹⁶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¹⁷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¹⁸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¹⁹분봉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²⁰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눅3:15-20)

사람은 마지막의 것들 안에 있을 때 천국과 결합한다. 즉 자연

적 사람은 세상의 것들 안에 있고, 영적 사람은 천국의 것들 안에 있을 때 천국과의 결합이 일어난다. 말씀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기록되고 그 속에 천국의 것들인 영적 의미가 들어 있는 것, 즉 말씀의 글자의 뜻은 자연적이지만 그 속에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A E.475:21)

※ AC(*Apocalypse Explained*, 계시록 해설) 475:21번 글에 대한 *Agar* 영역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for heaven is conjoined to man when man is in ultimates, that is, in such things as are in the world in regard to his natural man, while he is in such things as are in heaven in regard to his spiritual man; in no other way is conjunction possible. This is why baptism was instituted; also the holy supper; likewise why the Word was written by means of such things as are in the world, while there is in it a spiritual sense, containing such things as are in heaven, that is, that the sense of the letter of th

눅3:15-20

‘요한이 옥에 갇히다’

e Word is natural, while in it t here is a spiritual sense.

이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에 관한 주석 중 ‘그 옷을 씻어’에 대한 내용 일부입니다.

네, 그럼 시작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 나타나 회개를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옷”과 “먹을 것”은 겉뜻으로는 우리가 입는 옷과 먹는 음식이지만, 속뜻으로는 영적인 옷과 음식, 즉 진리와 선을 뜻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의 옷과 음식은 주님의 것이 아

니라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인간의 생각이나 의도 같은 것들이 섞이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더이상 진리가 아닌 것이 되고, 선은 선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옷과 음식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 중에는 진리를 대할 때,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틀이 있다는 것은 얼핏 바람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아의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정보를 이해할 때, 자기만의 틀을 갖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고정관념처럼 굳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대단히 유연한 것입니다. 마치 물이 어떤 모양의 그릇에도 담기는 것처럼 그렇게 유연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는 틀도 유연해야 합니다. 그 유연성은 어디서 옵니까? 자아로부터 오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를 내려놓을 때 진리를 받아들이는 틀조차도 주

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아의 틀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열어 주시는 그대로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바심이 납니다. 이것을 알아야 말씀의 실마리가 풀리는데, 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가? 하고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결국 저를 위한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음식과 옷을 갖지 않는 것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요한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심경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¹⁵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는 말은 그들이 요한에 거는 기대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사상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사실 메시아 사상은 고대교회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유대교회만의 믿음이 아니고 지구상의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있었던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 속에 등장하는 미륵신앙 역시 메시아사상입니다.

※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인 *Arca na Coelestia* 4680번 글에는 고대교회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홍수 후 주님에 의해 세워진 고대교회는 일종의 표상 교회로, 예배와 관련, 전반적으로 외적으로는 주님 나라 천적(天的, *celestial*) 영적인 것들을, 그리고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의 신성 그 자체 (*the Divine things themselves of the Lord*)를 표상하는,

눅3:15-20

‘요한이 옥에 갇히다’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체어리티(charity, 이웃사랑)와 연결되는 그런 속성을 갖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아시아 전역으로,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왕국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The ancient church which was set up by the Lord after the flood was a representative church, and was of such a nature that all and each of its externals of worship represented the celestial and spiritual things of the Lord's kingdom, and in the supreme sense the Divine things themselves of the Lord; but all and each of its internals of worship bore relation to charity. This church was spread over a large part of the Asiatic world, and through many kingdoms there;

그래서 아마 한반도에까지 이르러 우리나라에서는 미륵신앙으로 표현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고대교회가 몰락하면서 메시아의 의미가 모두 잊혀버렸습니다. 메시아의 의미를 모르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해낼, 그리고 그들을 지구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우월한 민족, 번영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줄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이 요한에게 기대하는 것 또한 그런 것입니다. 즉 그들은 요한이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어 본 요한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¹⁶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할 영적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교우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말씀을 표상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에서 사용하는 물은 그 속뜻으로는 말씀의 지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는 말씀의 지식을 통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 즉 말씀의 지식이 하는 일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주님께게서는 성령과 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이구요, 불은 주님께게서 나오는 사랑 또는 선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만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신적 인성(神的人性, *Divine Human*)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인 성령과 불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요한의 말은 주님께 대한 겸손함을 나타내지만, 그것 말고도 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은 신체의 가장 아래쪽

발에 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는 가장 낮은 등차(*degree*, 등급)의 것인 사람의 육체와 감각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계신 가장 깊은 내면이 있구요, 그 바깥쪽으로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차례로 있습니다. 겉 사람은 사람의 육체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겉 사람을 지배하는 것들은 대개는 육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욕망과 탐심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속 사람을 먼저 개혁을 하시고, 그리고 속 사람을 통해 겉 사람까지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사모하더라도 육신의 행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 사람 또는 육체를 영적으로 가장 낮은 등차, 등급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신발 끈”은 특히 육체에서 나오는 불결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신발 끈을 푸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불결한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주님의 신발 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요한이 옥에 갇히다’

이유는,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불결한 것들과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게도 “신발 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입으신 몸은 인간 마리아로부터 받은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결하거나 거룩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인간 본질은 거룩한 인간이었으며, 다만 그것을 덮고 있는 외적 인성이 마리아로부터 받은 인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에 속한 불결한 것을 벗기 위해서 지옥과 싸우셔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주님의 신발 끈이 풀리는 것은 주님께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것을 뜻하며, 동시에 인간의 거듭남과 구원을 뜻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화(*glorification*)와 인간의 구원을 동시에 의미하는 까닭은, 주님의 영화 또는 영광스럽게 되시는 일은 2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거듭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거듭나는 사람의 주님께서는 신발 끈을 풀기 위해 지옥과 싸우고 계신다는 것

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신발 끈은 곧 인류의 신발 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는 요한의 고백은 말씀의 지식만으로는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없고,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께에서 나오는 진리와 선이라야만 인류의 신발 끈을 풀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17절에서 요한이 주님께 대해 말합니다.

17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에는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타작마당은 교회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농부가 수확한 것을 도리깨로 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진실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에서, 손은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능력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교

회를 부단히 정화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교회이든 외부에 있는 교회이든, 선한 것과 악한 것, 진실한 것과 거짓된 것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세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분리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분리하십니다.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끝나면 쭉정이는 사라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거짓과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점점 진실한 믿음과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만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정화하는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 분, 한 분 교우들의 내면에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으로 이 교회가 정화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18절에서는,

¹⁸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

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요한이 말하는 “좋은 소식”, 즉 영어로 *good tidings*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은 이제는 다시 2천 년 전에 오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진리, 선을 동반한 진리로 우리 내면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 같이 우리 속에서 낡은 교회가 무너지고, 주님의 새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대단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매일 같이 오시고, 매일 같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요한, 즉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란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과, 새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다는 것과,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정화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이

눅3:15-20

‘요한이 욕에 갇히다’

루어진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19분봉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 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20**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욕에 가두니라

요한으로부터, 또는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그것으로 매일 새롭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19, 20절에 나오는 헤롯과 헤로디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분봉 왕이었던 헤롯에게는 빌립이라는 이복동생이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본래 빌립의 아내였는데, 그가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이복형인 헤롯과 재혼을 했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다는 말은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이 그들의 부정한 결혼을 지적한 것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

린 것처럼, 헤롯왕은 타락한 교회를 지배하는 거짓 진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왕은 진리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헤롯과 헤로디아의 부정한 결혼은 타락한 교회에서 벌어지는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영적 간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간음은 진리와 진리 아닌 것 또는 진리와 악한 것을 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배우자와 사랑하는 것은 아주 순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아닌 사람과 사랑을 하는 것은 불결한 것이고 간음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진리가 선이 아닌 것과 결합하거나, 또는 비진리가 선과 결합하는 것이 모두 영적 간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간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교리를 만드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거짓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이러

한 것들이 모두 교회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간음은 진리와 선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부정하다 책망한 것은 말씀의 진리를 통해 영적 간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날 교회에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것은 모두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동안 교회의 마지막 때 늘 있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정하다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교회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새로운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만 그것의 부정함이 드러납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부정이 요한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진실한 교회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참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교회들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참된 진리를 부정하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배척합니다. 그러므로 헤롯과 헤로디아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것은 타락한 교회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악을 더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참된 진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거짓 논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여러 구절을 가지고 거짓 논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것이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것이며, 타락한 교회들이 참된 진리의 입을 막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의 이 말은 말씀의 지식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말씀의 지식은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

눅3:15-20

‘요한이 옥에 갇히다’

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속으로 성령과 불이 흘러들어 와야 합니다. 성령은 주님께에서 나오는 진리이며, 불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만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의 지식 안으로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성령과 불이 흘러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악한 습관을 끊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으로부터 성령과 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두 벌 옷과 음식을 가지지 말라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벌 옷은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거룩한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아를 붙잡고 있는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오셔서 우리 안에 교회를 매일 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서울 새 교회 모든 교우께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52:7)

아멘

원본

2017-04-23(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3-18(D7)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